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챗GPT,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줘”



며칠 사이 SNS에서 친구들 사진이 갑자기 '지브리풍'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오픈 시가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능 때문인데, 사진을 올리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줘"하면 만화 주인공처럼 멋진 그림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AI가 지

브리 같은 특정 만화 스타일로 이미지를 바꾸려면 원작의 화풍을 학습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원작자들과 미리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너도나도 이미지를 변환하면서 나머지 오픈AI 서버가 과부하되기도 했다. 샘 올트먼 CEO는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제발 이미지 생성 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는 무료 이용이 일시 제한됐다.

프로야구, 창원NC파크 희생자 추모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도중 무게 60kg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중이 결국 숨졌고, 피해자의 10대 동생도 포함다른 관중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약 17.5m 높이)에 설치됐던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져 관중석으로 추락한 것인데, 현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BO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난 1일 예정됐던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했으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경기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학교서 ‘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 이후 38일 만,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한편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민주교육을 위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선고 당일 생중계 시청을 통한 계기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오뚜기, 라면 가격 올렸다



지난 1일부터 진라면·오동통면·짜술랭 등 오뚜기의 라면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오뚜기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했고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품별 상승 가격은 진라면 용기면이 1100원 → 1200원, 짜술랭 976원 → 1056원, 진라면 716원 → 790원, 오동통면 800원 → 836원 등이다. 한편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를 돌파했다.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도 3%대를 보이면서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가 나란히 3%대를 기록했다.

JTBC, ‘최강야구’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

JTBC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놓고 대립 중인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JTBC는 “지난달 31일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JTBC는 ‘최강야구’ 지식재산(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JTBC에게 있다며 C1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소장에서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했으며, ‘최강야구’ 스피노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JTBC는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겠다고 시즌4 제작진을 새로 구성했다.

그러나 C1은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시즌4 트리아아웃(신입선수 시험) 일정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강타·동방신기, SM과 재계약

가수 강타와 그룹 동방신기가 오랜 기간 몸담은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멤버 유노윤호는 “데뷔 때부터 함께한 SM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팬분들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동방신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강창민 역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SM과 동행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 주고 힘이 되는 SM과 함께 동방신기의 미래를 더욱 멋지게 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 데뷔해 ‘허그’(Hug), ‘라이징 선’(Rising Sun), ‘주문’, ‘왜’ 등의 히트곡을 내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룹 H.O.T. 출신 가수 강타 역시 SM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1996년 H.O.T.로 데뷔한 강타는 2001년부터는 독창곡으로도 사랑받은 싱



가수 강타(왼쪽)와 그룹 동방신기.

어송라이터다. 강타는 자신의 음악 여정을 지원하고 동행한 SM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재계약을 맺었다고 SM은 전했다.

강타는 2014년부터 SM 비디오팀 이사로서 사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듀싱 레이블 스매시히트(SMASHHIT)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타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변함 없이 응원해 주시는 SM과 또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계속해서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